



도쿄올림픽경기대회 특집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영광의 주역

부산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노영태 원로

노력의 땀방울

부산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

구·군체육회를 가다

남구체육회
천혜의 자연에서 다지는 백년의 비전, 건강한 도시 만들기



도쿄올림픽경기대회 특집

도쿄올림픽경기대회를 마치며
도쿄올림픽경기대회, 17일간의 여정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노영태 원로

평생을 함께한 체조, 후회 없이 걸어온 길



노력의 땀방울

부산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

하나된 믿음으로 정상을 지키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남구체육회

천혜의 자연에서 다지는 백년의 비전, 건강한 도시 만들기

도쿄올림픽경기대회를 마치며

코로나19의 여파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제32회 도쿄올림픽경기대회가 큰 문제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33개 종목에 3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기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순수하게 올림픽경기대회를 즐기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 평화와 화합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계가 다양한 종목의 육성과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를 치러낸 선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을 잘 도와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을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도쿄올림픽경기대회, 17일간의 여정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특집



도쿄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신예선수들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다. 이번 대회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혼성 양궁경기와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까지 최초로 3종목을 석권한 안산 선수의 기량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여자양궁 단체 9연패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제덕 선수 역시 혼성 양궁경기와 남자 단체전 2종목에서 금메달을 석권했으며, 체조의 여서정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 여자 기체체조 동메달 획득이란 기업을 토했다. 탁구의 신유빈 선수는 여자 단체전 8강, 개인전 3라운드,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100m 자유형에서 5위를 기록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또한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정식 종목이 된 스포츠클라이밍의 새천년 선수는 결선까지 올라 또 다른 미래를 보여줬다. 이에 장인화 선수단장은 "신예 선수들이 한국 스포츠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고 있다"며 "도쿄올림픽경기대회에서 얻어낸 최고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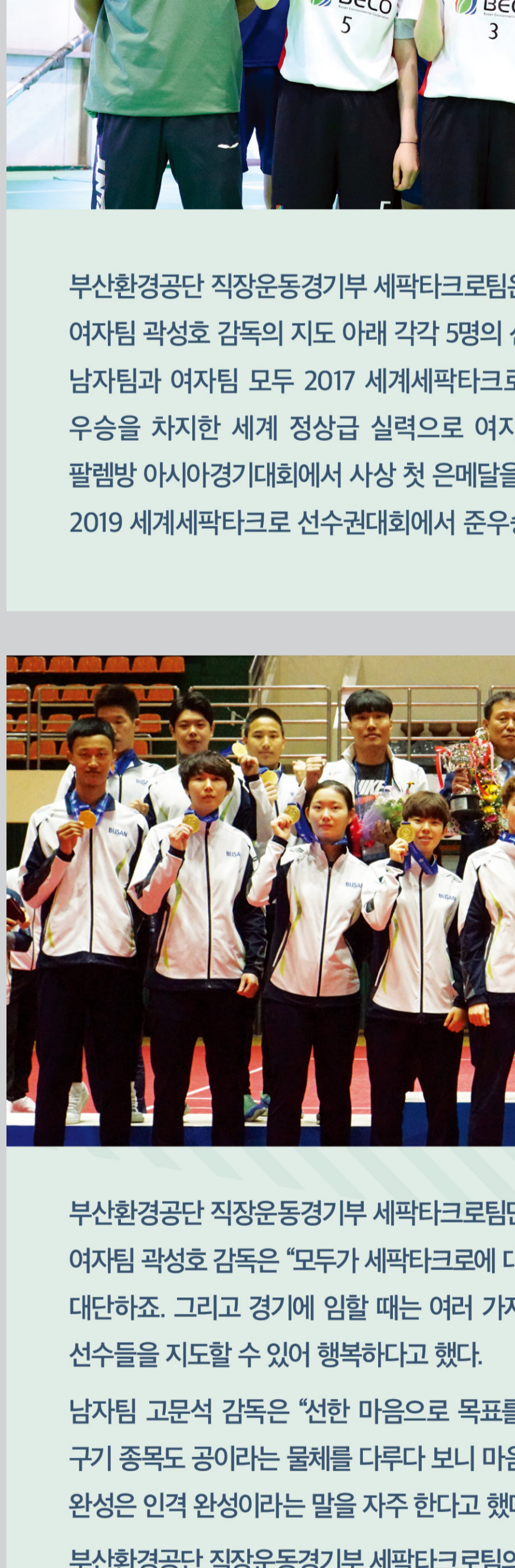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양궁은 혼성 경기 김제덕, 안산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올림픽경기대회 양궁 여자 단체전 9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양궁 남자 단체전과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 양궁에서만 무려 4종목의 금메달을 석권했다. 펜싱은 여자 에페 단체전 에스토니아와의 결선전에서 부산의 송세라 선수가 다른 세 선수들의 활약으로 9년 만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부산의 마세건 선수를 비롯한 네 선수들이 중국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초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금메달,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며 펜싱 단체전 4종목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체조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기체체조 최초로 여서정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며 체조의 남녀 메달리스트라는 기록도 세웠다. 기체체조 남자 도마에서는 신재환 선수가 양학선 선수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해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근대5종에서는 천웅태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5종 중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의 근대5종을 전 세계에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체조, 후회 없이 걸어온 길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노영태 원로

하나된 믿음으로 정상을 지키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

부산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은 남자팀 고문석 감독과 여자팀 광성호 감독의 지도 아래 각각 5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2017 세계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한 세계 정상급 실력자 여자팀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경기대회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팀은 2019 세계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부산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만의 강점으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이라고 말한다. 여자팀 광성호 감독은 "모두가 세팍타크로에 대한 애정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결속력도 대단하죠. 그리고 경기에 임할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하며 하루하루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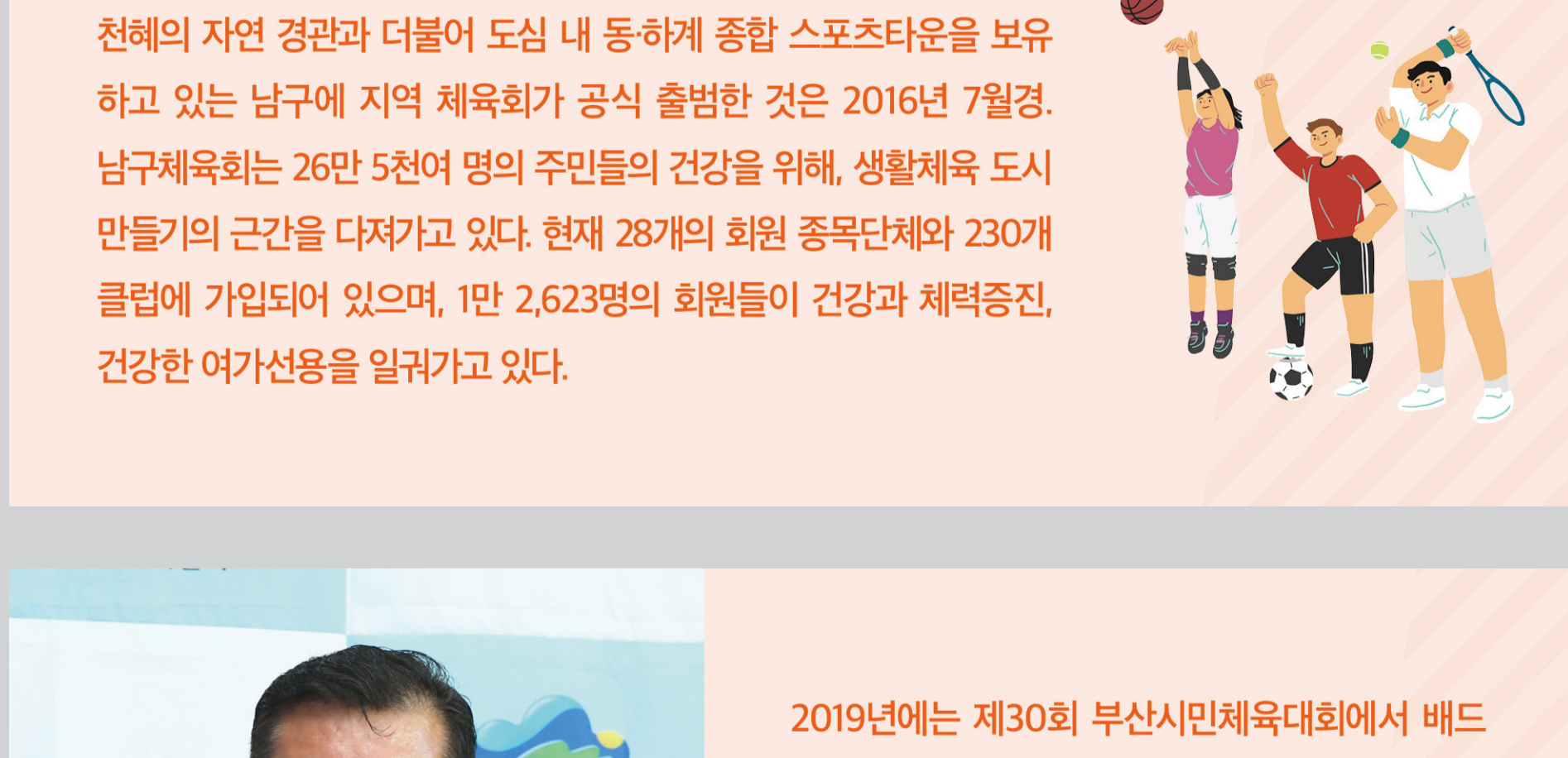
남자팀 고문석 감독은 "선한 마음으로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구기 종목도 공이라는 물체를 다루다 보니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라며 선수들에게 기술 완성은 인격 완성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부산환경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세팍타크로팀의 목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팀으로 성장하는 것과 부산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수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목표는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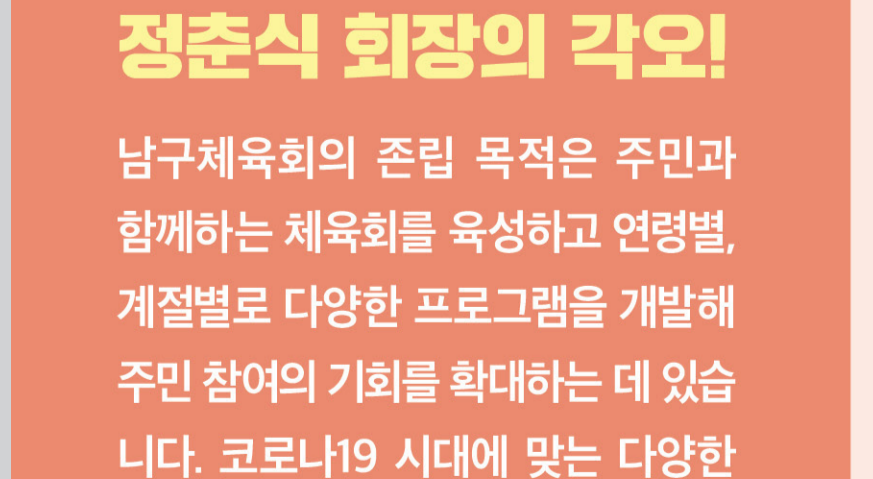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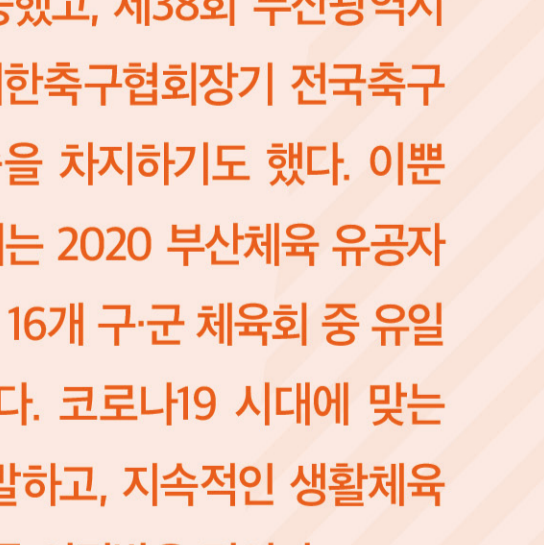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에서 다지는 백년의 비전, 건강한 도시 만들기

구·군체육회를 가다 남구체육회



천혜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도심 내 동하게 종합 스포츠타운을 보유하고 있는 남구에 지역 체육회가 공식 출범한 것은 2016년 7월경. 남구체육회는 26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 도시 만들기의 기간을 다져가고 있다. 현재 28개의 회원 종목단체와 230개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며, 1만 2,623명의 회원들이 건강과 체력증진, 건강한 여가선용을 일구고 있다.



정춘식 회장의 각오!

남구체육회의 존립 목적은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를 육성하고 연령별,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남구체육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2019년에는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 우승, 축구 2위, 제8회 부산광역시장애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우승했고, 제38회 부산광역시 축구협회장기대회와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에서 60대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만이 아니라 남구체육회는 2020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체육회 중 유일하게 단체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 환경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에는 주민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하기 위해 남구체육회 홈페이지를 최우선적으로 제작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과 공식 인스타그램에 직접 제작한 영상을 제공하고 홍보 전단을 남구 내 배포, 지역인 누구나 실시간으로 체육수업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프로그램(Zoom)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